희망은 최선을 끊는 커터칼

(에스겔 7:1~27)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4.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6.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7.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8.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9.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희망은 최선을 끊는 커터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희망은 최선을 끊는 커터칼’
9절의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는 말씀이 참 보기 드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선택하신 선민을 때리시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들이 끈질기게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희망하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에 때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희망은 최선을 끊는 커터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봅니다.

가수이자 연예기획사 대표인 박진영 씨의 “희망고문”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내용이 참 재미있고 뜻깊고 상당한 통찰까지 느껴지기에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같이 좋아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절망을 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둘 사이에 애인으로서는 전혀 희망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작은 희망 하나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속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에겐 본능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자신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길 바란다.
술에 취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라고 전화를 한다든지, 사귈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과 그냥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데이트를 한다든지, 싫어서 헤어지면서 이유는 집안이 어려워서, 옛 애인을 못 잊어서, 혹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행위들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그 사람 가슴에 안타까움과 속상함, 집착 등을 남겨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행위를 나는 "희망고문"이라고 부른다.

참 멋진 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희망고문은 희망을 주는 쪽의 잘못일까요? 희망을 갖는 쪽의 잘못일까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희망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미래를 향하게 하심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라는 뜻입니다. 희망이라는 말 자체는 이 땅에서 진행되는 삶과는 애초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대하는 방식이 희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삶은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리라 여겨지는 미래를 향해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이란 지금 가진 기쁨과 만족을 미래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면서 희망의 능력을 이 땅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리라 여겨지는 미래를 향하는 힘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타락의 힘이 희망의 능력을 다른 용도로 쓰게 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삶이란 희망적 미래를 향해 가는 과정이 아닌 지금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미래로 밀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뛰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배를 두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통한 희망에 대해 심오하고도 근원적인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독특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라고 하였습니다. 또 6절에서도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라고 하였습니

다. 언뜻 보기에는 유다 나라가 망하고 다윗 왕조가 끊어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의 강도와 반복이 현저합니다. 끝났다는 것은 이제까지 줄곧 진행되어 오던 어떠한 과정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예언이 주어지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써 소명을 받고 예언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BC.593년이었습니다. 당시 에스겔은 BC.597년의 2차 포로이송을 통해 바벨론에 끌려온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과 함께 잡혀온 사람들이나 이미 1차 포로이송을 통해 붙잡혀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예언활동을 하게 됩니다. BC.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까지는 아직 7여년이 남은 때였습니다.

이때에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온 선민들이 여전히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다에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아직 건재하였고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 왕의 통치 또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온 선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유다의 회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또 그러한 희망의 연장선상에서 자신들도 머지않아 그리운 고국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선민들이 붙잡고 있던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에스겔은 이러한 선민들을 향해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방의 일이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희망하기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사방을 둘러보니 선민들은 포로가 된 후에도 세상에 대해 희망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시기에 "희망을 잃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는 내용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에스겔의 예언을 해석하다 보면 정반대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끝났도다와 같은 맥락의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희망을 얼마나 지긋지긋해 하셨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셔서 쇠심줄 같고 고래힘줄 같았던 선민들의 희망하기를 끝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로로 잡혀온 선민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건재함을 통해 민족이 망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이 포로생활로부터 회복되리라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방인의 발아래에 짓밟히게 하심으로써 더는 이러한 희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지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본문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보시며 제일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미래를 향해 끈질기게 희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라고 반복합니다. 희망

의 근거가 되는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이 망하게 될 날이 이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요란하도록 산에서 무엇인가를 즐거이 불렀다는 것인데, 이제는 요란하기는 하나 결코 즐겁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즐거이 불렀다는 것인지 앞장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6장 2~3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산에 대해 심판이 예언된 이유는 바로 산당이 세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선민들이 요란하고 즐겁게 무엇을 불렀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당은 우상숭배의 백화점이었습니다. 바알 신전이나 아세라 신전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질 때에는 적어도 다른 신을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전문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당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일월성신과 온갖 우상들을 끌어 모아서 섬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의 우상숭배가 유다에서 토착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당에서 무엇을 즐거이 불렀다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계획과 소원을 털어놓으면 우상은 묵묵히 들어줍니다. 이렇듯 우상은 들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지만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침묵은 곧 자신들의 소원과 계획을 묵인하고 인정해주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힘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가지는 계획과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부흥회에 참여했는데 강사님이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면서 희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분들은 나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형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외칩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을 그대로 결재해주는 기분이 드니 성도들은 "아멘! 아멘!"하면서 호응합니다. 이렇게 하고나면 마음은 희망에 부풀고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확신은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산당 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더라도 묵인되고 희망에 부풀어 오릅니다. 본질적으로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으나 나의 믿음에서 비롯된 희망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에서 낫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산당에 와서 하나님을 비롯한 온갖 신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일월성신에 더해 여호와 하나님까지 힘을 합쳐서 내게 건강을 주리라 희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는 기도도 이

와 다르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녀들 형통하게 해달라는 희망의 기도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에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소원성취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이 당장 이루어진 것 같은 기쁨마저 듭니다.
이것이 본문 7절에서 말하는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고 끈질기게 해오던 희망하기를 절단을 내고 요절을 내고 끝장을 내버리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미래에 이루어 질 것을 희망하는 것보다 더 큰 배반과 더 큰 죄악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과 27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에서부터 희망이 죄악인 이유가 밝히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쓰는 이름은 히브리어 엘로힘입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한편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인격적으로 제시하신 이름입니다. 어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로써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내시고 가르쳐주신 이유는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만 주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선민임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몸부터 시작해서 가정형편과 주어지는 모든 사건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신 이유는 단순히 깨달음을 주시는 것 이상입니다. 빛이 1년간 진행하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지구로부터 100광년 떨어진 별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별빛은 100년 전에 출발한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지금 나에게 도달하게 된 상황들의 정체를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있는 자로써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한다면 우선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오류하심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 된 나에게 삶을 허락하실 때에는 항상 이러한 특성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총량이 100이라면 70~80쯤 사용하셔서 지금형편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100 전체를 다 사용하셔서 나의 삶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심과 무오류 하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당신 자신을 통째로 주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질 때에 마음에는 좋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좋음은 지구에 있는 어떤 가치도 배설물로 여길 정도의 좋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작동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 지금형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금형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완벽하게 작동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지금형편이란 하나님의 100%의 사랑과 100%의 전지전능하심과 100%의 무오류하심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

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 받은 선민의 운명은 지금이 최고이고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민들의 문제는 이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서 피조된 세상보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우선하여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으면 지금형편이 하나님의 100% 사랑의 결과이고 100% 전지전능하심의 결과이며 100% 무오류하심이 활성화된 결과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고 최선이 지금형편이라면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것일까요? 왜 희망의 유혹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19절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가치인 은과 금을 거리에 던지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형편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금형편을 최고이자 최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을 붙잡아보려고 하여도 근본적인 목적은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설교의 제목이었던 “지금형편을 바라보는 기술”이 거꾸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형편이 항상 부족하고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은과 금을 버렸듯이 그것들은 실은 마음에 담아두기엔 오물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심령을 족하게도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선민들의 처한 상황에서는 은과 금을 가지고도 창자를 채울 음식거리조차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형편은 목적론적 최고의 최선입니다. 최종적으로 천국과 하나님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기 위한 과정으로써 최고이자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과 금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는 망하는 것조차도 최고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최종적으로 천국과 하나님을 얻게 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종목적지를 향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오류하심에서 비롯된 계획을 부인하는 것이고 칼로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선민들이 할 일은

지금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수록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앞으로 뛰어나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는 대신에, 부른 배를 두드리며 현재에 감사하는 천국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세상을 향해 갖는 희망을 끈질기게 유지했습니다.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땅에도 동일한 하늘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복지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결과로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그 죄를 깨닫고 하늘을 향했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유다의 백성으로 되돌아갈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된 지금의 상태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갖기를 희망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땅에 대한 희망 갖기를 멈추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이를 지긋지긋해 하십니다. 이들의 희망의 근원이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실 것을 예언토록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희망을 가진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억울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종목적지로 삼았을 때에 이 지구는 온통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의 가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갖도록 지금형편도 허락하신 것인데 선민들이 이것을 싫어하고 자꾸 땅에 대한 희망을 가지니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고 무오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오류하심이 총동원되어서 최종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계산을 마친 뒤에 최고이자 최선으로 지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아니라고 하고 잘못되었다고 하고 형편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암에 걸렸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더라도 우선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아진 형편으로 가겠다는 희망을 갖기 전에 지금형편을 최고이자 최선으로 여기는 감사가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내 기업이자 몫으로 갖고 이 세상의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가 되는 최종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과정입니다. 이러한 지금이 최고이자 최선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암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게 생겼더라도 지금을 감사하면 오히려 살아날 확률도 생겨납니다.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속성을 염두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 아픔을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암에 걸린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다면 더 이상 암으로 고생할 이유가 없으니 나을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암이 낫든 낫지 않던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은 최고이자 최선입니다. 암이 낫기만을 바라며 희

망을 갖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의 100% 사랑과 100% 전지전능하심과 100% 무오류하심으로 만들어진 지금형편을 잘라버리는 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고이자 최선에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은 죄악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며 더 친해지기를 희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을 희망하고자 하는 죄악 된 체질을 끊임없이 죽이기를 바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최고이자 최선인 지금형편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오류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된 희망의 삶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영원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